

2008년은 골판지포장산업 상생기반 구축의 해



오진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www.kcca.or.kr kcca01@empal.com

지난해에는 국내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매우 많았고, 동시에 기업경영하기 매우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의 지속은 모든 원자재의 폭등과 수급 불균형 현상을 불러왔으며 경제 살리기라는 화두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선거 열풍 등은 어느 해보다 경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갖게 한 한해였음을 반증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골판지포장업계도 이러한 국내외 경영 환경에 자유롭지 못하여 원자재 파동이 7개월 이상 지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수반하여 3개월 사이에 골판지원지가격은 2회에 걸쳐 30%이상 인상되었으며, 운송비 및 부자재 구입비용 특히 수입옥수수전분의 가격이 중국 측의 증치세 환급폐지 및 수출세 부과 등으로 만만치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동시에 급격한 구조조정 의 소용돌이가 1년 내내 지속되어 왔습니다.이렇듯 2007년도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 일로에 있었습니 다만, 그 와중에서도 다소간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기

도 하였는데 경제를 우선한다는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금년도에는 우리 골판지포장산업계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골판지포장산업계는 정부의 합성수지제 포장재의 사용제한이 강화되었고, 배추·무 등 농산물의 강제포장시책 정착과 진화되고 있는 물류시스템의 한축으로써 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지류포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으로써 우리 골판지포장시장 내에서 다양한 긍정적 요소가 자리 잡게 된 만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골판지포장시장이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시장 확장이 이루어지고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질서 재구축작업에 다 같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합은 무자년 새해 앞에 놓인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2008년도는 골판지포장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마련으로 업계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조합에서는 골판지용 옥수수전분의 수입 쿼터물량의 충분한 확보, 인력 고도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골판지포장규격의 통일단순화를 위한 규격정비사업, 판로확보 지원을 위한 KOREA PACK 2008 전시장내에 골판지포장 특별전시관 운영 및 골판지지원지 등의 공동구매 활성화로 적자산업화 탈피 등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에 고착되어 있는 적자산업화의 고리를 여하히 끊고, 골판지포장업계를 포함한 지함업계, 골판지지원지업계 등 연관 산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다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골판지상자는 그것을 만드는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꿈과 희망을 거두는 일이며, 업계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원리란 무절제한 무한 경쟁이 아니라 질서있는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업간 거래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가격 제값받기 운동에 모두 동참함으로써 다소간 경기회복이 기대된다는 소식도 들리는 만큼, 올해는 흑자경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조합은 지난해 운영목표를 골판지포장산업 안정성장 정착의 해로 정하면서 상생과 협력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 역점을 두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의 운영목표를 『골판지포장산업 상생기반 구축의 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조합은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관기업과 전문기업, 제지와 골판지, 골판지와 지함업계간의 협력을 통해서 구조조정 연착륙의 분위기 조성을 위

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업계 경영여건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골판지포장산업의 원부자재 가격폭등 및 경영악화에 따라 산업용 에너지인 병커 C유, LNG 가스 등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배추·무 포장화 시책은 농산물의 위생성, 환경성과 더불어 시장 내 물류시스템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물류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하고, 환경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합성수지포장재에 국비지원을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골판지포장재 사용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도 골판지배추·무 소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스스로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며, 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지원시책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실천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戊子年은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경영환경을 뒤로하고, 새로운 활력과 기운이 충만한 역동적인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만큼은 골판지포장업계 및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그동안의 시름을 걷어내고 희망찬 앞날과 부푼 기대를 실현해 가는 성공적인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